“한 몸만을 위해 해탈 구하지 말라”

선문회, 혜국 스님 초청 특강 … ‘몽산법어’ 등 열강

“마음의 언어 깨닫는 공부가 화두선” 분발심 독려

8월 15일, 하안거 한철 안거수행이 끝났다. 폭염보다 뜨겁게 정진하던 수좌들도 바랑을 둘러메고 홀가분하게 산문을 나섰다. 드디어 만행수행이다. 결제 때 정중(靜中)공부를 위주로 했다면, 해제 때는 동중(動中)공부 위주로 탁마하는 수행기간이다.

이처럼 하안거 해제 후 결제동안 공부했던 것을 점검하며 새롭게 발심하기 위한 공부모임이 울진 불영사(주지 일운) 천축선원에서 열렸다. 전국비구니선원선문회(회장 육문)가 17~18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을 초청해 봉행한 ‘선(禪) 특강’은 해제와 결제가 따로 없이 정진하는 선불장(選佛場)이었다. 전국 비구니선원 34곳에서 하안거를 난 924명의 비구니 수좌 가운데, 150여 명이 동참한 이번 법회는 참선의 기초를 다룬 <좌선습의(坐禪習儀)>와 선어록인 <몽산법어(蒙山法語)>에 대한 혜국 스님의 법문과 지도로 진행됐다.

17일 오후 2시, 인도의 천축산과 같은 지명, 비슷한 산세를 가진 천축산 아래 천축선원에서 막 만행 길에 나섰던 수좌들은 다시 모여 선특강 입재식을 갖고 중단 없는 수행을 다짐했다.

선문회 회장 육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일생일대의 단 한 번 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입재식이 끝난 후 특강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초청법사 혜국 스님은 <좌선의> 습의에 앞서, 화두에 대한 안목을 새롭게 갖도록 하기 위해 <몽산법어> 강의부터 시작했다.

“화두는 말씀과 천지창조 이전의 근본자리입니다. 부처님이 오고 감에 상관 없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여여(如如)한 자리입니다.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의 언어로만 가능합니다. 마음의 언어를 깨닫기 위해 애쓰는 공부가 바로 화두선입니다.”

혜국 스님은 <몽산법어> 원문을 읽고 해설하면서 화두공부를 경험담을 곁들여 설명해나갔다. “주관도 객관도 없는 그 자리를 화두라 하니,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지는 화두를 스승 삼고 벗 삼는 이 복은 염라대왕도 어쩔 수 없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잠재의식이라는 업식(業識)이 부처로 되는 시간이니까요. 망상을 어디에 내버려두고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망상을 화두로, 아는 놈을 모르는 놈으로 바꿀 수 있는 화두참선법은 참으로 대단한 수행법입니다.”

간화선 수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침서인 <몽산법어> 강의를 통해 혜국 스님은 앎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했다. 특히 신해행증(信解行證: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증득하는 것)이 차례대로 닦아야 할 과정이 아니라, 모두 한 자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동시에 닦아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몽산법어> 가운데 “달마가 송(頌)하여 이르시되 ‘부처 마음을 깨닫는 데는 한 가지라 차별이 없으나, 아는 것(解)과 행(行)이 서로 상응해야 이름을 조사라 한다’ 하시니라” 하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튿날, 혜국 스님은 좌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좌선의> 강의를 통해 좌선하는 마음가짐, 호흡법, 자세 등을 체험담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호흡, 몸가짐, 마음쓰기(用心)가 부조화되면 신진대사가 안돼 선질(禪疾)을 얻어 중도에 포기하기 쉽기에 몸과 호흡이 잘 되도록 해서 마음의 현실적 깨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혜국 스님은 잠이나 음식 조절, 마장의 극복 등 좌선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행자의 정신자세 즉, 보살정신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릇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우선 대비심을 일으켜 큰 서원을 세우고, 정교하게 삼매를 닦아 맹세코 중생을 제도하려할지언정 자기 한 몸만을 위해선 해탈을 구하지 말지니라”는 <좌선의> 법문이 그것이다. “널리 이웃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이 전제되지 않은 수행은 이미 방향이 틀렸습니다. 개인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수좌들이 있다면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60~70대 노스님들도 적지 않게 참여한 이번 법회에서 수좌들은 간화선 수행의 목표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욱 새롭게 인식하고 발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선문회 기획실장 성정 스님은 “스님들이 참선의 정신과 방법을 제대로 익힌 귀한 공부기회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부처님 형상을 한 바위가 연못에 비치는 유서깊은 아름다운 도량을 뒤로한 채 웅장하고 깊은 불영계곡을 나서는 비구니 수좌들의 발걸음이 환희심으로 가볍게 느껴졌다.

울진=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인터뷰

“비구니 수좌 수행정진 돕는데 일조”

전국비구니선원선문회장 육문 스님

“조사스님들의 서릿발같은 대검(大劍) 아래 일도양단(一刀兩斷)하는 대용맹의 기개로 헤이해지는 정진의 마음을 다시 대분심으로 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구니선원의 발전과 청규기강 확립, 수좌들간의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1000여명의 비구니스님이 모여 지난 2000년 창립한 전국비구니선원선문회. 이 수행결사의 회장 육문 스님(은해사 백흥암 회주 · 사진)은 “선원 수좌들의 위의와 생활규범을 더욱 강화해 올바른 참선 수행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4월 24일 영천 은해사 백흥암에서 개최된 제8차 전국비구니선원선문회 정기총회에서 연임된 육문 스님은 1962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4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0년 경북 양진암에서 수선안거한 이후 제방 선원에서 수행에 전념했으며, 1982년 백흥암 감원, 제11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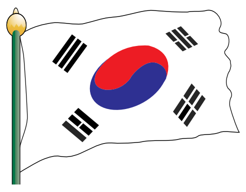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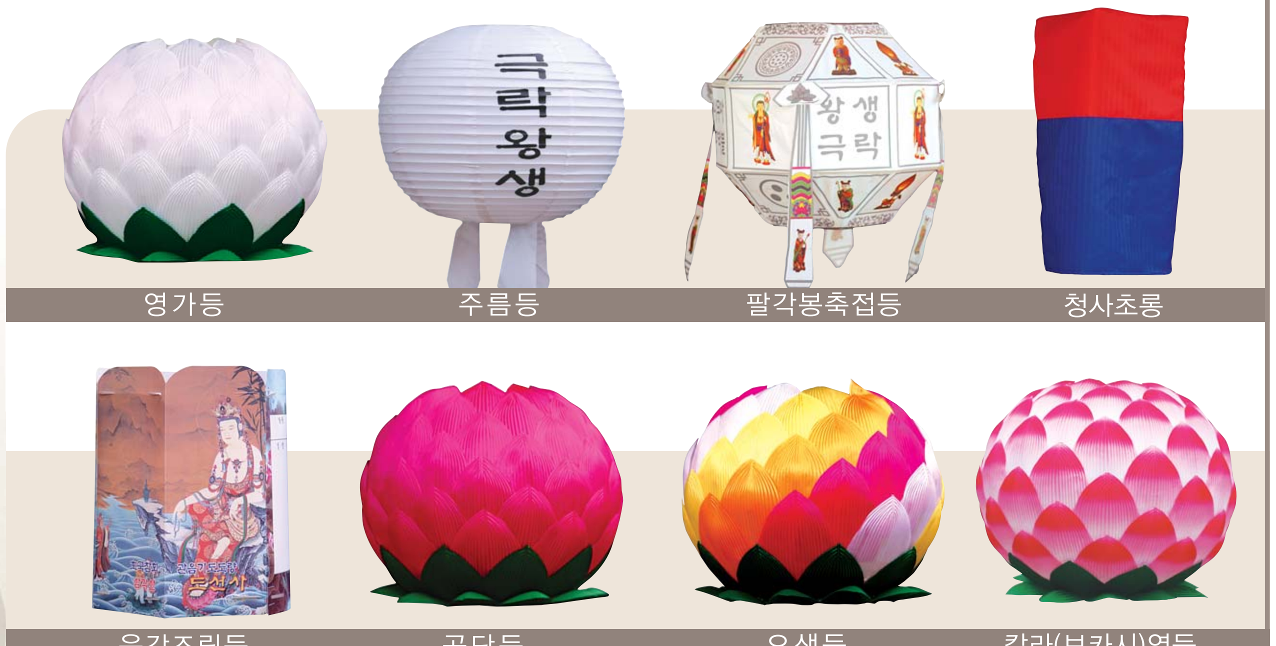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영가등 ·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 공단등 · 오색등 · 칼라(보카시)연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